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독거노인 30명과 1대1 일촌 맺기’ 후원 사업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와 함께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조성민 병원장을 비롯해 일산 동구보건소 안선희 소장, 이동보건소 팀장 등 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 10여 명과 지역 어르신 5명이 함께 참석했다.

독거노인 일촌 맺기는 보건소 등록 독거노인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사가 1대1로 일촌을 맺고 매주 1회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 및 건강모니터링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날 30명의 독거노인과 일촌을 맺었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모임인 연우회는 혈압관리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30명에게 전자혈압계 30대를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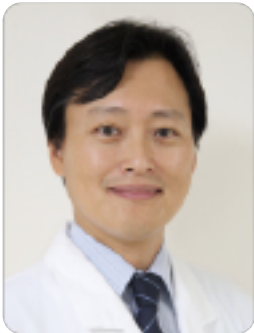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조성민 병원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홀로된 어르신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가족 없이 쓸쓸히 지내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자궁선근증 감축술’ 신의료기술 승인



산부인과 노주원 교수



산부인과 윤상호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최근 국내 최초로 자궁선근증에 대한 새로운 수술법인 ‘자궁선근증 감축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여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로부터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자궁선근증 감축술(Adenomyomectomy)’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산부인과 노주원, 윤상호 교수 연구팀에 의해 개발 된 기술로, 오랜 기간 선근증으로 고생하는 난임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수술법이다.

‘자궁선근증 감축술’이란,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신력 향상과 월경곤란증 및 월경과다증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한 의료신기술이다.

이번 연구의 원인인 자궁선근증은 자궁내막조직이 자궁근육층에 침투하는 질환으로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며, 난임의 주 원인 중 하나다. 노주원 교수 연구팀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며 결혼과 출산연령 또한 높아져 이로 인해 가임여성에게 선근증으로 인한 난임이 지속해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자궁선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많은 여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병동간호 · 총무 · 시설 합동 화재 안전 캠페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간호팀은 지난 4일 입원환자들의 쾌적한 병실 환경과 환자안전을 위해 매월 ‘에코그린 라운딩’을 통해 병동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Ecogreen rounding은 병동수간호사로 구성된 병동간호업무 개선팀 외에도 총무팀, 시설팀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소방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안전한 간호를 위한 활동과 더불어 병실 내 전열기구 단속, 침대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화재와 관련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고, 협조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안내문을 제공했다.

환자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병동의 한 수간호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경각심과 환자와 보호자들의 인식도 함께 변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제1회 고양지역 의료 IT분야 집담회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정보팀은 최근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실시된 ‘2018년 제1회 고양지역 의료 IT 분야 집담회’에 참여했다.

고양지역 의료IT 분야 집담회는 대한병원정보협회 고양지회(대양회) 주관으로 병원 간 최신 의료정보 동향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집담회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등 고양지역 5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원 의료정보팀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참석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의료 IT 협력업체 초청 강연을 통해 최신 트렌드 기술 소개와 함께 정보 교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